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교회소식

◆ 모임

1. 장학회 모임 / 12일(주) 2부 예배 후 802호
2. 사라전도회 월례회 / 12일(주) 2부 예배 후 101호
3. 6교구 리더 모임 / 12일(주) 오후 12시 30분 식당(8층)
4. 70인전도대 모임 / 12일(주) 오후 1시 30분 식당(8층)
5. 리브가전도회 월례회 / 12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6.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이사회 보고 / 12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알림

1. 101호 /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8. 603호 /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9. 606호 /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11. 701호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802호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15분-12시 55분
15.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첫 번째 세례식인 2월 세례(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이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 교육: 2월 19(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입교와 세례 문답: 2월 19(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16.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 - 오늘(12)과 다음 주일(19일) 1,2,3부 예배 시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합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역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헌신과 반역”

■ 마가복음 14:1-11

우리의 삶이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다양한 반응과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겠습니다.

1. 거절과 반대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사역이 끝나가는 본문 1절에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제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오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실 때가 오려면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들과도 마음대로 접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메시아 시대의 조건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전을 헐라'는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당들은 모든 외세를 무력저항으로 몰아내고 순수한 선민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모든 폭력에 반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석방하려 노력했습니다. 마 27:18에 그 이유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 사건으로 야기된 폭발적인 백성의 지지를 얻고 계신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질투의 결과였습니다. 명백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에 저항한다면 이는 결국 파멸하게 될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2. 반역에 가담한 사람

베다니 마을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가롯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흥취하고 싶은 탐심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사리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바친 향유를 보고 좋은 제품인 것을 알았고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임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서 그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직분도 재능도 다른 사람의 신뢰도 모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주님 곁에서 오로지 자기 잇속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30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파렴치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돈은 매우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삶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돈에 관하여 유혹 받을 때가 많고 돈 때문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어가 인성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의한 소득을 원하게 되고 허영심 때문에 과도한 낭비가 있고 나누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도 하나님의 선교에 그의 삶과 재능을 바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신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거짓을 낳고 양심의 마비를 낳고 결국은 돈과 함께 그 자신도 망했습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영원히 기념되는 헌신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자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제에 사용할 돈을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라며 영원히 기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구제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중한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 타락한 존재이며 절대 무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참여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모든 곳에서 기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힘쓰되 더욱 복음의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비교불가능의 가치와 능력이며 나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이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욕구를 깨뜨리고 향유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입례송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	히 10:19, 22...	인 도 자	* 신앙고백 .....	다 함 께
기 원 .....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	찬 양 팀	기 도 .....	말 은 이	
* 찬 송 .....	14(1, 4절)...	다 함 께	찬 양 팀	환영과 축복 .....	찬 양 팀	
* 신앙고백 .....	다 함 께	기 도 .....	말 은 이	교회 소식 .....	인 도 자	
* 성서 교육 .....	36(시 90)...	다 함 께	성경 봉독 .....	막 14:1-11...	말 은 이	
* 송 영 .....	4 .....	다 함 께	찬 양 .....	찬 양 대	찬 양 대	
기 도 .....	말 은 이	찬 송 .....	500...	다 함 께	설 교 ...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
성경 봉독 .....	막 14: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	다 함 께	* 찬 송 .....	460 .....
성도의 교제 .....	다 함 께	봉헌, 튀르키예, 시리아지진 구제헌금 ...	다 함 께	결단의 기도 .....	다 함 께	
* 봉헌송 .....	634...	다 함 께	봉헌, 튀르키예, 시리아지진 구제헌금 ...	다 함 께	* 봉헌기도 .....	설 교 자
* 봉헌기도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헌신과 반역”...	손달익 목사
찬 양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	다 함 께	설 교 .....	“헌신과 반역”...	손달익 목사
설 교 .....	“헌신과 반역”...	설 교 ...	“헌신과 반역”...	손달익 목사	* 찬 송 .....	505...
* 찬 송 .....	505...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후 주 .....	찬 양 팀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막 14:9)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 찬 양 예 배

##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전재홍 목사	이원석 집사	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권소희 권사
			II 오후 7시	조원영 목사	김정제 권사

목 도 .....	다 함 께	성 경 .....	왕상 17:1-7 .....	인 도 자
찬 송 .....	29 .....	다 함 께	찬 양 .....	찬 양 대
기 도 .....	말 은 이	찬 송 .....	91 .....	다 함 께
성 경 .....	왕상 17:1-7 .....	인 도 자	설 교 ...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	설 교 자
* 찬 송 .....	46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성 경 .....	삼하 16:1-1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	조원영 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	김익환, 전재홍 목사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	찬 양 팀
설 교 .....	김익환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862	624명	2,486명	584명	1,886명